

# 하나님의 심판

-後期 유대 文獻을 中心으로-

黃 昌 起\*

◇ 目 次 ◇

1. 序 論
2. 默示文獻
  - 2.1 舊約과 默示文獻의 關係
  - 2.2 默示文獻의 起源
  - 2.3 默示文獻의 特徵
  - 2.4 默示文獻에 나타난 審判思想의 特徵
    - 2.4.1 民族主義的
    - 2.4.2 集團的
    - 2.4.3 珍滅的
    - 2.4.4 要約
3. Qumran 文書
  - 3.1 Qumran의 救援手段
  - 3.2 Qumran 文書에 나타난 審判思想의 特徵
    - 3.2.1 分派的
    - 3.2.2 兩分對立的
    - 3.2.3 神의 道具用
    - 3.2.4 要約
4. 結 論

## 1. 序論

하나님은 기록하시고 의로우시며 공義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歷史世界 안에서 罪人들에 대한 그의 審判은 늘 있어 왔음을 舊約聖經은 밝히고 있다. 특히 그의 百姓들과의 言約關係 下

\*助教授

에서, 言約의 主權的인 主님으로서, 그의 公義대로 그의 言約의 百姓들이 犯罪할 때 벌을 내리시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審判은 目的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시었다.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審判이 가난한자와 고아등 도움이 필요한자(the needy)에게는 도움과 구원(help and deliverance)이 되었다. (시 76 : 9; 82 : 2 이하) 그러한 救援의 審判(saving judgment)은 그의 거룩, 義, 公義, 言約에서 발로된 것이며 또한 그의 慈悲와 恩惠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公義로우신 하나님의 審判은 여호와와 날(the day of Yahweh) 思想과도 깊은 關聯이 있다. (高麗神學報 제10輯(1985), 25-42 참조) 이러한 舊約의 審判思想은 後期 유대 文獻에는 어떻게 反映되어 있는가? 그리고 舊約과는 어떤 差異가 있는가?

本稿에서는 이 問題를 默示文獻과 Qumran 文書를 中心으로 論하고자 한다.

## 2. 默示文獻(Apocalyptic Writings)

默示文獻이란 대개 主前 3 世期부터 主後 약 1 世期 어간에 걸쳐서 유대인 및 기독교인에 의하여 쓰여진 문헌으로서 여러 幻像(visions) 또는 啓示(revelations)를 內包하는 점이 그 일반적 특징이라 하겠다. 특히 이 文獻들은 世上의 運命과 人類의 宇宙的인 歷史에 關한 特殊한 解法과 關聯된 世界 終末(Brown 1975 a : 50)의 幻想과 啓示로 點綴되어 있다. 默示文獻에 關하여 Gasque는 다음과 같이 說明한다(1975 : 200)

넓은 意味로 “默示的”(Apocalyptic)이란 말은 舊約 先知書의 一部-특히 요엘, 스가랴 그리고 다니엘과 또 新約의 一部-감람산 講論, 살전 4 : 13 이하, 살후 2 : 1-12, 啓示錄-에도 適用된다. 그러나 慣例적으로 新·舊約 中間時代に 生成된 것으로, 正經에 屬하지 않는 特殊文學의 장르(genre)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많은 文獻들 중에는 僞經(Pseudopigrapha)의 범주에 속하는 것도 많다. 그러므로 正經의 다니엘書나 啓示錄은 例外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默示文獻이란 말은 默示的 要素가 包含된 後期 유대 文學의 總體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本 小考에서는 그 龐大한 默示文獻을 모두 다 다룰 수는 없다. 그 중에서도 終末論의 特色이 뚜렷한 에녹1書(Ethiopic Enoch), 바룩 2 書, 에즈라 4 書(2 Esdras)에 重點을 두겠다. 勿論 必要하다면 이 외에 다른 默示文獻을 參考로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 2.1 舊約과 默示文獻의 關係

默示文獻에 나타난 審判 思想을 要約하기 前에 舊約(특히 先知書)과 默示文獻에서 말하고 있는 審判과 關係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줄 안다. 이 점에 관하여 D.S. Russell(1964 : 205-270)의 意見을 따르는 C.J. Roetze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1972 : 28-29).

先知書에서는 하나님의 勝利를 現在 世界 秩序 가운데서 期待하는 反面에, 默示文獻에서는 하나

님의 勝利가 歷史 終末 以後에 올 것으로 본다. 默示文獻에서는 사탄의 權勢들과 政事(principalities)는 血肉(flesh and blood)과 함께 하나님의 원수이다. 만일 默示文獻에서 나오는 戰爭들이 宇宙的이고 先知書에 나오는 싸움이 國際的이라면……, 이들 文書에 나오는 싸움은 그 主題나 用語에 있어서 서로 共通點을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默示文獻은 豫言(prophecy)이 發展한 것이며, 또 先知書와 默示文獻들은 서로 차이점과 비슷한점을 지닌다고 學者들은 말하고 있다(Charles 1913 : 173, 178-184; Ladd, 1960 : 51; Morris, 1927 : 27).

### 2.2 默示文獻의 起源

첫째로 이런 類의 文學은 “의로운 남은자”(righteous remnant)가 出現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 集團의 무리들이 이와 같은 豫言의 表現을 自己들 자신에게 適用하였다. Antiochus Ephiphanes 4세가 유대인들을 헬라의 文化와 宗教에 強制로 同化시키려한 以來(168 B.C.) 수많은 敬虔한 사람들-律法을 不順從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擇하면서 屈服하기를 거절한 소위 하시딤(Hasidim 또는 Hasideans)-이 일어 났으며, 나중에 이들은 바리새당과 Qumran 共同體를 組織하였다(Bruce, 1961 : 112).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 少數의 集團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信實하게 섬기고 있었으나, 全民族的인 次元에서 볼 때 自己들의 理想이 實現되어지는 것을 거의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로운 남은자”(righteous remnant)에 關한 豫言은 自己들 안에서 이루어 지리라는 생각을 하는 傾向이 있었다. 그러한 意識構造로 말미암아 默示的 文學樣式은 대개 비슷하고 닮은 性格을 띠게 되었다. 말하자면, 그 當時의 默示文學은 事實上 反抗文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Ladd, 1960 : 50; Morris, 1972 : 25).

둘째로 默示文學의 生成起源은 罪惡의 問題에서 찾을 수 있다(Ladd, 1960 : 51-52). 이스라엘의 觀點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그 이웃의 다른 民族보다는 道德的으로 더 높은 水準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繁榮을 더 누리지 못하였다(Morris, 1972 : 26). 하나님의 統治 代身에 Hasmonean 家가 이끄는 世俗的인 支配者가 나왔으며, 63 B.C. 以後에는 Rome의 統治者와 그를 따르는 유대인 官吏들로 이어지고 있었다(Bruce, 1961 : 59-63 참조). 그들의 所望은 오직 하나님의 干涉으로 모든 惡으로부터 救援 받는 것 밖에 없었다.

默示文學의 세계 生成要因은 豫言의 中斷이라고 하겠다. 때때로 “先知者들은 잠들어 있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바룩2書 85 : 3; 마카비 1 書 4 : 46; 9 : 27; 14 : 21 참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豫言을 들어 왔었는데 豫言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고 沈默을 지키고 있을 때, “그 空白을 메울 必要가 있었다” (Morris, 1972 : 26). 이러한 時代的 要請가운데서, 默示的인 文學 形態가 일어나 義人들의 苦難과 하나님 나라 到來가 遲延되는 이유를 提供하고 있었다.

D.S. Russell(1964 : 73-103)은 默示起源의 內的 動機를 豫言의 發展에서 찾고 있다. 그는 主張하기를 “默示란 主의 날(the day of the Lord)에 表現된 바와 같은 未來에 關한 豫言의 敎

訓을 取하여 그 當時의 宗教的 觀點 및 體驗으로부터 擴大하고 그 內容을 豊富하게 한 것이다.” 고 말했다. 默示文獻 著者들은 先知者의 豫言中에 豫見的 要素에 아주 執着하였던 것이다 (Russell, 1964 : 96). 그래서 Russell(1964 : 97)은 T.W. Manson의 主張을 따라서 설명하기를 默示란 “先知者들의 豫言 속에 있는 豫測的인 面을 宇宙의 全攝理的인 秩序라는 한 편 面을 合理化하고 組織化하려는 試圖”라고 하였다. 또 그는 默示를 심오한 倫理的 심각성의 結果로 보았다(1964 : 100-103). 그리하여 Russell(1964 : 100)은 默示家들을 옹호하는 立場에 서게 된다. 즉 默示文獻을 내놓는 사람들은 先知者들의 純粹한 말씀을 模倣하고 毀損하는 일당의 怪常한 무리로 볼 것이 아니라 宗教思想的으로 價置되고 唯一한 貢獻者라는 것이다. L.Morris (1972 : 26)도 D.S. Russell의 이 見解를 다음과 같이 同意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默示文獻 著者들에게 感謝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義를 세우기 爲하여 간절히 思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當時 사람들의 必要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供給하려고 冊을 썼던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主張을 首肯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對答은 否定的인데 이제 默示文獻에 나오는 審判 思想을 계속 살펴보면 그 理由가 더욱 分明해 질 것이다. 이보다 앞서 默示文獻의 特性을 개괄해 보는 것이 必要하다.

### 2.3 默示文獻의 特徵

默示文獻의 特徵을 文學的인 것과 宗教的인 것으로 二大別하여 簡單히 살펴 보겠다(Ladd, 1960 : 51-53; Russell, 1960 : 104-138; 참고 205~390; Morris, 1972 : 34-67; Rist, 1962 : 157-161; Gasque, 1975 : 200-204).

#### 2.3.1 文學的 特徵

##### ① 啓示(revelation)

默示文獻 著者들은 自己들이 英雄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直接 啓示한 內容을 主題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啓示의 範圍는 廣範한데 主로 世上 終末에 觀한 것이 支配的이며, 특히 이 世上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臨하리라고 한다.

##### ② 秘教(esoterism)

默示文獻에 나오는 啓示는 대개 密敎的이라, 末世에 살고 있는 默示家 自身の 時代에 비로소 밝혀지는 것이며, 그것도 一般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仔細한 內容은 잘 알 수도 없고 어떤 集團이나 默示的인 그룹을 始作한 지혜자들(the wise)에게만 속하는 眞理라고 한다.

##### ③ 象徵主義(symbolism)

默示文獻이 現代人에게 어려운 이유는 그 著者들이 異常한 象徵들을 많이 쓰기 때문이다. 啓示가 分明한 言語로 쓰여지기 보다 神秘로운 수수께끼 같은 形式으로 쓰이며, 비유나 各種 象徵等 짐작도 하기 어려운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런 類의 글에는 짐

승들, 여러 印(seals), 강들, 山들, 별들 天上의 靈物들 등이 많이 등장한다.

##### ④ 假名(pseudonymity)

一般的으로 유대 默示文獻 著者들은 假名을 使用하였다. 그래서 著者들은 自己들이 쓴 啓示가 원래 에스라나 모세, 또는 아브라함이나 바룩 등과 같이 잘 알려진 信仰의 英雄들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啓示 自體는 著者 自身の 時代부터, 發効하기 始作한다고 한다.

##### ⑤ 다시 쓴 歷史(rewritten history)

대개의 默示文獻은 過去의 歷史를 取하여 豫言의 形式으로 다시 쓴 것이다. 그래서 에녹 1 書 85-90편에는 아담 때부터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歷史를 要約하였다. 歷史上的 에녹 便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은 未來로 보이며, 따라서 이는 豫言과 같이 보이기 마련이다.

#### 2.3.2 宗教的 特徵

##### ① 二元論(dualism)

默示文獻에는 대개 二元論의 對立을 볼 수 있다. 즉 現在의 苦痛과 未來의 救援, 惡과 善, 惡靈과 善한 靈, 빛과 어두움, 흑과 백, 하나님 백성과 異邦人, 하나님과 사탄, 이 세대(this age)와 오는 세대(the age to come), 이 세상(this world)과 천국(the kingdom of God)등이다.

이러한 思想은 舊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例 : 사 32 : 15-18; 11 : 6-9; 65 : 17 66 : 22). 그래서 默示文獻에 나오는 二元論은 根本的으로 一神論(monotheism)의 構造下에서 省察해야 할 것 같다. 例를 들어서 사탄이나 다른 惡靈들이 獨立的으로 存在할 수 없고 그 活動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下에 있기 때문이다(Morris, 1972 : 51)

##### ② 歷史觀(historical perspective)

하나님의 뜻이 歷史的 過程 안에 實現되고 있다고 보는 先知者들의 見解와는 달리 默示文獻 著者들은 歷史란 하나님 뜻과 사탄의 뜻이 다투는 廣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R.Murdock은 “歷史란 사탄의 뜻을 表現하는 一部”라고 하였다. 그래서 眞正한 所望은 宇宙的 드라마에 있으며, 歷史 저 쪽에 있는 未來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 ③ 厭世主義(pessimism)

하나님의 간섭이 臨할 때까지는 모든 것이 所望 없다는 思想이 默示文獻에 두루 깔려 있다. 이는 이 文獻들이 처음부터 어떤 “위기의식”에서 나온 文學이며, 地下文獻으로 逼迫을 받는 자들에게 慰勞의 文學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 ④ 決定論(determinism)

默示文獻 著者들은 世界의 歷史의 進路는 이미 定해진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自己에게 닥아온 惡의 勢力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 자체를 곧 神의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들은 惡을 對敵하여 이기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歲月이 지나면 惡이 終局的으로 敗할 것으로만 보았다.

##### ⑤ 倫理的 敎訓(Ethical teaching)

舊約의 先知者들은 當時의 百姓들을 慰勞하기보다 그들의 罪를 指摘하는데 가차가 없었다.

그러나 默示文獻 著者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 當時의 이름 뿐인 信仰人들을 꾸짖기 보다는 오히려 義로운 남은자(the righteous remnant)로서 慰勞하고 두둔해 주는데 더욱 關心이 있었다. 先知者들은 왜 하나님의 擇한 百姓들이 이 惡한 世代에 살아야 하는가 라는 問題로 腐心했다면, 默示文獻 著者들은 왜 義로운 者들이 그런 苦難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問題를 提起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그들의 目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慰勞하면서 그들이 옳은 길에서 있다고 肯定해주고 改革하려고 하지 않았다(Morris, 1972 : 58)

## 2. 4 默示文獻에 나타난 審判 思想의 特徵

### 2. 4. 1 民族主義的(nationalistic)

默示文獻에 쓰여진 *υβως (χριστος)*는 舊約의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 그러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特徵中的 하나는 默示文獻을 쓴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非유대인을 저주하는데 審判을 適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審判은 異邦人에게 내려질 것이나 이스라엘 百姓들은 하나님의 보호(vindication)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默示文獻에서 異邦人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憎惡感을 종종 發見한다. 審判날에 하나님께서 온 地球를 치실 것이며 異邦人을 삼켜버릴 것이다(에녹 1 書 90 : 18) 쥬빌리書 24 : 28-30에는 異邦人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며 天使들이 그들을 滅亡시킬 것이라고 한다. 메시아는 異邦人을 벌하는 것을 도울 것이며(솔로몬의 시편 17 : 17), 살아 남은 자들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솔로몬의 시편 17 : 32 이하). 에녹 1 書 91 : 12에는 여호와의 명령아래 義人들은 異邦人의 殄滅을 도울 것이며 반면에 유대인들은 自己들을 壓迫한 者들을 칼로 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비록 이 咀呪에서 살아남아, 中立의 立場에 있는 민족들도(바룩 2 書 68 : 5) 하나님의 百姓을 받들고 敬意를 表해야 한다(에녹 1 書 91 : 14; 9 : 30, 33, 35; 91장-104장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 참조).

그 反對로 유대인들은 救援을 받을 것이다. 異邦人들은 滅亡받을 것이나, 유대인들인 自己들의 이름은 萬軍의 主님 앞에 남아 있을 것이다(에녹 1 書 104 : 1). 勇士가 넘어질 것이나 擇者들(the elect)은 救援을 받을 것이다(에녹 1 書 62 : 13). 이스라엘이 벌을 맞보겠지만 이는 滅亡이 아닌 懲戒(chastisement)를 爲한 것이다(솔로몬의 시편 18 : 3-6). “수많은 默示文獻에서 ‘義人’과 ‘惡人’을 民族 또는 種族에 關係없이 倫理的 根據로 分明히 區分하나(例 : 에녹 1 書 91 : 108), 대개 義人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惡人은 異邦人을 뜻한다”(Russell, 1964 : 297).

舊約의 先知書들도 異邦人들의 罪惡을 豫言하고 있다(사 63 : 1-6; 34 : 1 이하; 렘 25 : 29-38; 46 : 10; 14 : 1 이하; 겔 38 : 39). 그러나 舊約 聖經에서의 하나님의 審判이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公義(justice), 義(righteousness), 그리고 거룩(holiness)에 입각한 하나님의 審判 執行(God's execution of His judgment)으로 理解해야 한다. 反對로 默示文獻에서의 審判은 舊約 先知書에서 말하는 審判과 區別되어야 한다. 默示文獻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審判 執行대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偏愛主義 및 不公平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Qumran 著者들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不義하고 惡한 世代로부터 自己들의 立場을 改善해 주고, 높여 주는 補助者(helper 또는 assistant)로 記述하고 있다. 그들의 神觀은 決定論的(deterministic)이다. 즉 自己 合理化를 爲해 하나님을 自己에게 有利하도록 解釋하는 我田引水格이란 뜻이다.

### 2. 4. 2 集團的(Corporate)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審判이 民族主義的이란 말은 곧 集團的 意味(corporate sense)와도 通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默示文獻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審判은 개인보다도 대개 團體的으로 理解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集團的 審判은 유대인들, 異邦인들, 牧者들, 使徒들, 王들, 富者들, 勇士들 등의 單位로 차별없이 내려지는 審判을 말한다(Roetzel, 1972 : 29). 즉 個人의 責任보다 團體의 運命을 더욱 強調한다는 뜻이다. 닥아올 世界의 大終末의 審判은 超自然的인 能力--타락한 天使들, 鬼神들--도 그들이 行한대로 벌을 받는 大審判이다(에녹 1 書 10 : 16; 14 : 1; 19 : 1; 22 : 13). 勿論 個人의 審判도 말하기는 한다(例 : 에스드라 2 書 7 : 105).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 개인은 한 共同體(community)를 豫表하거나 그와 비슷한 代表的인 地位에 있어서 말한다.(Roetzel, 1972 : 31).

### 2. 4. 3 殄滅的(Consummational)

默示文獻은 하나님의 審判을 現在의 惡한 世代가 끝나고 오는 世代(age to come)가 始作하는 한 方便과 같은 것으로 描寫하고 있다. 이러한 思想은 默示文獻 著者들의 歷史觀과 關係가 있다. 그들에게는 默示的 所望이란 다만 歷史가 끝난 다음에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歷史의 이 現世에 關係해서는 厭世的(pessimistic)이면서, 오는 세대(age to come)에 關係해서는 樂觀的(optimistic)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舊約의 先知者들은 하나님의 目的이 이 歷史 過程속에서 達成되기를 追求했으며, 또 그들은 民族과 그 指導者들이 只今 여기서 (here and now) 올바른 行動을 함으로써 중차대한 歷史的 結果가 따르도록 유도하는 任務에 全力을 다했다”(Morris, 1972 : 63). 先知者들과는 反對로, 默示文獻의 著者들은 現世를 포기하고 將來의 殄滅을 追求하고자 하였다. 그들은 最終的 結末에 關係해서는 確信하면서도 莫然한 하나님의 干涉만을 將來의 期待로 삼고 있는 것이었다. “後期 유대主義에서는 時間 世界의 마지막에 惡의 勢力이 敗함으로 天國의 最終的 來臨이 強調되었다”(Floor 1981 :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審判은 그 本質上 殄滅的이며, 宇宙的으로 일어날 最終末論的 事件--즉 復活, 世上의 分解 등--과 같은 것이 수반된다(Vielhauer, 1965 : 590). 이러한 審判으로만이 現世의 惡을 피하고, 의롭고 즐거운 生活을 達成할 수 있다고 默示文獻 著者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默示文獻은 最終末의 날에 救援이 이르기 爲하여 現世에 임하는 訓育的인 審判(pedagogical judgment)을 때때로 말한다(에녹 1 書 104 : 1; 에스드라 2 書 12 : 34, 솔로몬의 시편 18 : 3-6). 그러나 基本的 개념은 두 時代에 關한 것인데 즉 現世代는 惡하고, 變하며 終局을 向하여 달리고 있으며(에녹 2 書 66 : 6, 에스드라 2 書 4 : 5; 11 : 26이하, 36이하, 5 : 50이하; 6 : 20; 7

: 12이하, 31; 11 : 44; 바룩2書 44 : 9, 12; 54 : 21), 反面에 오는 世代는 永遠하고 초월적이며 生命 및 祝福, 기쁨 그리고 平和가 充만한 세대이다(에녹 2 書 58 : 5; 61 : 2; 65 : 7-10; 66, 6이하, 51 : 8; 바룩 2 書 44 : 11).

#### 2. 4. 4 要約

默示文獻에서는 하나님의 審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써 世代를 殄滅하고 새 世代를 시작하는 手段으로 理解하고 있음을 本 研究에서 發見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民族主義的인 심판이요, 개인보다도 集團的으로 시행되며, 종 殄滅의 最終末論的이었음이 그 特徵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質問에 對한 答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참으로 默示文獻 著者들이 價置있고 貴한 貢獻者인가(D.S.Russell)?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感謝해야 할 것인가(L.Morris)? 宗教的인 觀點에서 보면 이 質問에 對한 對答이 肯定的인 일런지 모르겠다. 그러나 앞(2.2 마지막)에 인용한 L.Morris의 主張을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默示文獻 著者들이 自己 나라와 民族을 爲해서 하나님의 公義를 높이 세우고자 하는 動機는 認定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거짓 文獻을 지어내고 이로 인하여 當時 사람들을 誤導한 잘못을 容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들은 모세 五經 및 先知書 및 글들(writings)을 가지고 있었지만, 自己들의 罪 때문에 어두워진 狀況을 이 말썽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허위문서를 創出하는 罪를 犯한 것이다. 만일에 우리가 默示文獻의 價置를 구태어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우리 한국에 福音이 들어오기 前에 佛敎가 神靈한 世界에 대한 우리 民族의 眠目を 떠워 준 것처럼(Blair & Hunt, 1977 : 20-25), 默示文獻도 예수님 當時의 유대人들에게 메시아 待望의 雰圍氣 造成과 같은 宗教的 思想 形成에 寄與한 點이라고 하겠다.

### 3. Qumran 文書(Scrolls : literatures)

#### 3. 1 Qumran의 救援手段

Qumran 文書도 역시 默示文獻에 屬한다. 따라서 그 起源 및 特徵 等은 앞에서 論한 것과 大同小異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Qumran 文書を 따로 取扱하는 理由는 이 文書가 龐大한 量이라는 點과 또 終末論 一色의 特徵 中에서도 그 內容이 多樣하기 때문이다.

Qumran 文書에서 다음과 같은 審判에 대한 表現들을 發見할 수 있다 : 報復의 날(Day of Vengeance) (懲戒規範, <1QS> 10 : 19), 殺生의 날(Day of Slaughter) (感謝詩, <1QH> 15 : 17), 審判의 날(하박국 註釋 <1 QpHab> 13 : 2-3), 원수들에게 복종하는 시간(戰爭文書 <1QM> 17 : 5-6) (LaSor, 1972 : 94) 등의 말들이 자주 나온다.

Qumran 文書에서의 審判 思想을 理解하기 爲하여 Qumran 救援論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P.Garnet(1980 : 20)에 依하면 적어도 다음 4 가지의 具體的인 救援手段을 Qum-

ran 共同體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 敎訓 또는 知識 특히 그 共同體의 創始者-의로운 先生(The Teacher of Righteousness)-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律法(感謝詩 <1QH> 4 : 5 이하, 23 이하, 27 이하, 5 : 20-39; 8 : 4-24; 9 : 29-36).

(2) “거룩한 영”(the spirit of holiness)으로 불리우는 Qumran 共同體 內에 널리 알려진 거룩한 분위기(atmosphere) (感謝詩 <1QH> 4 : 29-32; 16 : 9-12; 懲戒規範 <1QS> 3 : 6-12; 9 : 3; 5 : 1-7 참조).

(3) 위의 분위기가 不義한 者들의 惡영향으로부터 흐려지는 것을 막기위한 共同體의 排他性(exclusiveness) (感謝詩 <1QH> 6 : 27 이하; 懲戒規範 <1QS> 2 : 25-3 : 12; 5 : 13-20).

(4) 責望과 처벌을 포함한 Qumran 共同體의 勸懲(the discipline of the community) (感謝詩 <1QH> 6 : 4, 懲戒規範 <1QS> 8 : 1 이하; 다마스쿠스 문서 <CD> 20 : 17 이하).

以上 4 가지 外에도 順從(obedience)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다마스쿠스 문서 <CD> 20장 25절에 “言約의 자손들도 順從이 없으면 救援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Garnet, 1980 : 20). Qumran 構成員들은 自己들이 言約共同體(covenantal community)의 代表로 자처하고 있었다. 그들은 Qumran 共同體 生活自體가 救援의 終着이요 地上에 있는 一種의 天國으로 理解하였다(感謝詩 <1QH> 11 : 11 이하, 15 : 14 이하).

#### 3. 2 Qumran 文書에 나타난 審判 思想의 特徵

##### 3. 2. 1 分派的(Sectarian)

默示文獻에 나타난 審判 思想中 가장 重要한 것이 民族主義的(nationalistic) 傾向이라고 한다면, Qumran 文書에 나타나는 審判 思想은 分派的(sectarian) 또는 分離的(partial)이라고 描寫할 수 있을 것이다. Qumran 人들에게는, 救援이란 全的으로 自己들의 特權으로서 오직 Qumran 共同體 內에서만 또 Qumran 共同體를 통해서만이 可能한 것으로 본다. 默示文獻에서도 救援이란 오직 이스라엘 百姓들의 獨点的인 것이요, 反對로 審判은 異邦人들 위에 내려지는 것으로 記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Qumran 文書에서의 審判도 全的으로 Qumran 共同體에 屬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며 또 義로운 先生(the Teacher of Righteousness)의 가르침과 律法에 信實하게 順從하지 않는 者들에게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Qumran 共同體는 典型的인 非妥協主義者들(nonconformists)로서, 그 共同體의 始發, 그 生活方式, 그리고 그들의 義務등이 律法에서 나왔기 때문이었다(懲戒規範 <1QS> 8 : 13-16, 다마스쿠스 文書 <CD> 6 : 4; 7 : 15-18). 審判思想을 포함한 Qumran 敎訓의 極端的인 分離分派的 傾向은 대개 Qumran 共同體의 創始者인 의로운 先生의 偏狹된 가르침에 基因한다. 의로운 先生 만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그의 隱密한 것( 37 : 단 2 : 30; 4 : 9)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先知者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peshar(註釋)에 나타내시는데 이로써 하나님의 隱密한 것( 37 )이 그가 擇한 解釋者(interpreter)인 의로운 先生에게 나타낸다(Bruce, 1959 : 8). 의로운 先生의 가르침에 따르면, Qumran 人들은 先知者들이 豫言한 모

든 것이 成就되고 있는 이 世上의 終末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Qumran의 生活樣式을 그저 “길” (the way)이라고 했으며(懲戒規範(1QS) 9 : 17-18, 21). 또 그 生活方式이 곧 레위기 26장과 에셀 20장의 成就로 보았다. 그들은 自身을 가리켜 “Damascus地域에 새 言約안에 들어온 사람”(懲戒規範(1QS) 1 : 18, 20; 다마스쿠스 文書(CD) 6 : 19; 8 : 21; 19 : 33-34, 참조 20 : 2), “이스라엘의 남은자”(다마스쿠스 文書(CD) 1 : 4), “새 聖殿”(懲戒規範(1QS) 8 : 5), “새 造成地 (new plantation)” (懲戒規範(1QS) 11 : 8), “하나님의 새 百姓”(戰爭文書(1QM) 1 : 5; 3 : 13) 등 여러 가지로 지칭하였다. 또 그들은 자신을 “이스라엘과 아론”의 共同體(다마스쿠스 文書(CD) 1 : 7) 혹은 “아론과 이스라엘”의 共同體(懲戒規範(1QS) 9 : 11)로 自處하였다(LaSor, 1972 : 49). Qumran 共同體 그 自體는 “하나님 百姓의 聖徒”(e.g. 戰爭文書(1QM) 6 : 6),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1QM 14 : 12), “거룩한 사람들”(懲戒規範(1QS) 8 : 13), “거룩한 남은자”(1QS 8 : 21)등으로 描寫되었다.

### 3. 2. 2 兩分對立的(Bipartite)

死海寫本에서의 審判 思想은 分派的이라고 하였다. 이 分離分派的 傾向은 곧 審判 思想의 兩分對立的인 特徵과 直結된다. 이는 默示文獻에서 말하는 審判 思想과도 大同小異하다. 다시 말해서 言約의 百姓이라고 自處하는 Qumran人들에게는 臨迫한 審判이 神의 도우심(vindication)을 約束하는 것인 反面에, 信實하지 못한 유대人들에게는, 刑罰인 동시에 異邦人들에게는 滅亡이었던 것이다. 이 審判의 兩分對立的 特徵은 先知書에 나오는 “眷顧 또는 懲罰”( וַיִּבְרַח : visitation)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点에서도 잘 나타난다(Roetzel, 1972 : 42). 예를 들면, “懲戒規範(1QS) 4 : 6-8에서 “眷顧”(visitation)란 말은 肯定的인 뜻을 가지어서 善한 자는 報償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나 4 : 11-14에서는 否定的인 의미를 나타낸다. 邪惡한 精神을 가지고 살아가는 者들은 刑罰과 滅亡만을 초래할 뿐이다”(Roetzel, 1972 : 42-43).

하나님의 懲罰(visitation)의 兩分對立的 特徵 외에도, 審判思想은 一般的으로 二元論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懲罰또는 眷顧라는 말은 義로운 者들에게는 神의 변호 또는 雪辱인 反面에 惡人들에게는 咀呪였던 것이다. Qumran 사람들은 하나님의 眷顧의 날(the day of God's visitation)이 臨迫하였으며, 곧 하나님께서 그의 天使들과 함께 내려오시어 “빛의 아들들”(즉 Qumran 共同體)의 便에서 싸우시어 自己들의 反對者들과 모든 罪를 깨끗이 일소하실 것을 강하게 믿고 있었다(戰爭文書(1QM) 1 : 5-12). 온 이스라엘의 罪는 없어질 것이며, 빛의 아들들은 救援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戰爭文書(1QM) 3 : 9-19; 懲戒規範(1QS) 3 & 4)

### 3. 2. 3 神의 道具用(divine instrumental)

하나님의 選擇者의 共同體로서, Qumran 分離主義者들은 自己들의 存在意義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民族 사이의 仲保的인 價置에서 찾을 수 있었다. 즉 Qumran 共同體의 存在價置는 이스라엘 百姓과 땅(land)에 對한 Qumran 共同體의 和睦祭物的인 機能(propitiatory function)에서 찾고 있었다. 그들이 믿기로는, 自己들의 하나님에 對한 철저한 順從, 苦難과 逼迫中에도 義를 爲한 自己들의 忍耐, 嚴格한 戒律에 對한 그들의 服從 등이 모든 것 때문에 하나

님께서 자기들을 容納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指導者들의 잘못으로 이스라엘 땅이 죄악에 물들었을지라도 그 땅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다(Bruce, 1970 : 523-524; 1961 : 113). 이와 같은 思想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懲戒規律(1QS) 3 : 6-12; 4 : 20-21; 5 : 6-7; 9 : 3-5, 會衆律(1QSa) 1 : 1-3). 다마스쿠스 文書(CD) 3 : 15-20에서는 하나님께서 死海分派들(Dead Sea Sectarians)을 이스라엘의 남은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自己의 律法 즉 풍성한 물의 근원을 주었다고 한다.

F.F.Bruce가 指摘한대로(1961 : 113; 1959 : 51) “그들의(또는 Qumran 共同體 自體) 의무는 이사야 52 : 12-53 : 12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고난 및 순종의)의 역할을 成就하는 것보다 못지 않다”고 한 것은 매우 興味로운 일이다. 感謝詩(1QH)에 나오는 몇가지 句節을 調査한 후에 F.F. Bruce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1959 : 53-55).

.....Qumran 共同體는 順從과 苦難으로써 많은 사람을 위한 罪를 代贖하여 그들을 義로운 者들로 만드는 여호와의 종의 使役을 成就하도록 자기들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했다. 여호와 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한다”는 이사야 53 : 11의 말씀이 어떻게하여 “지혜있는 者”(원 박받는 זִכְרֵי צְדָקָה (지혜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 者”로 描寫된 다니엘 12 : 3에 反映되고 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Qumran 共同體의 構成員들이 自身들을 זִכְרֵי צְדָקָה (지혜자)라고 自處하여 다니엘書에 나오는 זִכְרֵי צְדָקָה (지혜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는 事實에서 그 意味를 더욱 깊이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참조. Dupont-Sommer, 1961 : 367).

Qumran 共同體의 和睦祭物 機能(propitiatory function)은 不敬虔한 者들을 審判한다는 思想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不敬虔한 者, 特히 이스라엘을 壓制하는 異邦의 壓迫 者들에 대한 神의 報復이 있을 것을 期待하고 있다. 그들은 하박국書 1 : 12 下半節을 다음과 같이 註釋하고 있다.

.....하나님은 다른 民族의 손을 빌어서 그의 百姓들을 滅亡시키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의 擇者들이 모든 民族을 審判하도록 맡기실 것이다. 擇者中에서 역경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誠命을 지킨 자들이 하나님의 百姓 가운데 惡한 者들을 그 懲罰로 咀呪할 것이다(하박국 註釋(1QpHab) 5 : 3-6).

그리고 審判이 神의 道具用으로 Qumran 共同體가 利用되고 있는 경우를 懲戒規範(1QS) 8 : 10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寵愛의 對象이 되어 그 땅을 爲한 和睦祭物이 될 것이며 邪惡이 더 날뛰지 못하도록 모든 罪惡에 대한 審判을 執行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審判을 執行함에 있어서 Qumran 共同體의 이러한 神의 道具의 機能을 다니엘이 異像가운데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恒常계신 者에게 나아와” 宇宙의이고 永遠한 權勢를 받는 “人子 같은이”(단 7 : 13 이하)와 同一視하는 点이다(Bruce 1959 : 57; 1961 : 114).

그래서 그들의 和睦祭物的 使役과 不敬虔한 者들을 審判하는 機能 사이에 서로 一致点이 있음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3. 2. 4 要約

Qumran 文獻에서 審判 執行 過程中에 Qumran 共同體가 점점 두드러진 役割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死海文書에서의 審判 思想에 대한 獨特한 特徵은 民族主義의 分派主義, 二元論의이며, 하나님의 審判 執行에 자기들이 神의 道具로 使用되어지고 있다는 思想으로 要約할 수 있겠다. 腐敗하지 않은 祭司長職을 바라고, 예루살렘에 더럽혀지지 않은 祭物을 대신하여 순수한 禮物을 드릴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며, 또 聖經을 틀림없이 精確하게 解釋하고자 하는 熱望 等은 Qumran 共同體가 未來 指向의이고 단순한 默示에 依存하는 集團보다는 다른 次元에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Roetzel, 1972 : 49-50).

4. 結論

우리는 지금까지 新舊約 中間時代의 後期 유대 文獻에 나타난 하나님의 審判 思想을 考察해 보았다. 이는 舊約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舊約에서의 하나님의 審判은 오직 그의 거룩과, 義, 그리고 公義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그의 자비와 恩惠에 근거하고 있다. 創造 時부터 마지막 終末까지 하나님의 𑤀𑤄𑤆𑤃 (공의)가 그의 審判의 杖대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호와와 날(the Day of Yahweh), 여호와와 종(the Servant of Lord), 또 人子(the Son of man)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高麗神學報 10輯(1985) 25-42참조).

默示文獻에서 하나님의 審判은 民族主義的이고, 集團的이요 또한 殄滅的이란 말로 特徵이 워졌다. Qumran 文獻에서는 審判 思想이 默示文獻에서보다 훨씬 더 分派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Qumran 사람들이 그 共同體가 自己 同族을 爲한 和睦祭物的 機能을 담당하는 것과 審判의 執行에 있어서 神의 道具로 쓰이는 기능을 각각 여호와와 종과 다니엘서의 人子의 役割로 同一視하는 점은 注目할만 하다.

後期유대 文獻에서는, 歷史 안에서 활발하게 救援使役을 펴시는 力動的인 하나님의 개념이 없다. 後期유대 文獻의 著者들은, 先知者들과는 달리, 歷史에 對하여 絶望的인 態度를 取하며, 歷史는 罪惡으로 완전히 물들었다고 생각했다. 소망이란 오직 歷史의 저쪽 끝에 있는 未來에 있을 뿐이었다(Ladd, 1974 a : 101). 그들은 “크고 두려운 날(the great and terrible day) (을 2 : 28-32; 말 4 : 5; 참조, 사 61 : 2)에, 여호와와 종과 人子의 모습으로 메시야가 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마지막 大終末에 “아론과 이스라엘의 메시야”(the Messiah of Aaron and Israel)와같은 人物로 나타날 것을 믿는다(懲戒規範(1QS) 9 : 11). 後期유대 文獻에서는 “크고 두려운 날”은 이 世上 끝에 놓여 있을 뿐이다. 그들의 메시야는 이 世上의 終局에 終止府를 찍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民族이 하나님과의 참다운 交際가 끊어져 암흑에 빠졌을 때 民族主義 및 分派主義에 빠진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參考文獻

- BLAIR, W.E & HUNT, B.F. 1977 The Korean Pentecost and the Sufferings which followed. Edinburgh : The Banner of Truth Trust. 159 p.
- BROWN C. ed. 1975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1.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822 p.
- BRUCE, F.F. 1959 Biblical Exegesis in the Qumran Texts. Den Haag : Uitgeverij van Keulen, N.V. 82 p.
- \_\_\_\_\_. 1961 Second Thought on the Dead Sea Scrolls.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60 p.
- \_\_\_\_\_. 1970 “Qumran”(In Brandon, S.G.F., ed. Dictionary of Comparative Religion. London : Weidenfeld & Nicolson, p.522-525).
- CHARLES, R.H. 1913 A Critical History of the Doctrine of a Future Life in Israel, in Judaism, and in Christianity, or Hebrew, Jewish and Christian Eschatology. London : Adam and Charles Black. 484 p.
- COETZEE J.C. 1972 Life(Eternal Life) in John's Writings and the Qumran Scrolls. Neotestamentica, 6 : 48-67.
- DUPONT - SOMMER, A. 1961 The Essene Writings from Qumran(Translated from French by G.Vermes). Oxford : Basil Blackwell. 428 p.
- FITZMYER. J.A. 1967 “Qumran Community”(In Whalen, J.P. et al eds. New Catholic Encyclopedia. Vol. 12.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p.33-35)
- FLOOR L. 1981 Die Evangelie van die Koninkryk : 5 Aspekte. Pretoria : N.G. Kerkboekhandel. 109 p.
- GARNET. P. 1980 Qumran Light of Pauline Soteriology.(In Hagner, D.A. & Harris, M.J. eds. Pauline Studies : Essays Presented to Professor F.F. Bruce on his 70th Birthda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32).
- GASQUE. W.W. 1975 “Apocalyptic Literature”(In Tenney, M.C. et al eds. The Zondervan Pictorial Encyclopedia of the Bible. Vol.1.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p.200-204)
- HANSON, P.D. 1976 “Apocalypticism”(In Crim. K. ed.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Supplementary Volume, Nashville : Abingdon Press. 998 p.)
- LADD, G.E. 1960 “Apocalyptic Apocalypse”(In Harrison, E.T. ed. Baker's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p. 50-54)
- \_\_\_\_\_. 1974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370 p.

LASOR, W.S. 1972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81 p.

MORRIS, L. 1972 *Apocalyptic*. Grand Rapids : Wm.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05 p.

RIST, M. 1962 *Eschatology of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In Buttrick, G.A. et al eds.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2. Nashville : Abingdon Press. p.133-135)

ROETZEL, C.J. 1972 *Judgment in the Community :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schatology and Ecclesiology in Paul*. Leiden : E.J.Brill. 208 p.

RUSSEL, D.S. 1964 *The Method and Message of Jewish Apocalyptic*. London : SCM Press. 464 p.

VIELHAUER, P. 1965 *Introduction to Apocalypses and Related Subjects*. (In Schneemelcher, ed. *New Testament Apocrypha Vol. 2*. Translated by D. Hill et al London : SCM Press Ltd, p.81-607).

# 기독교 세례의 기원

李 還 鳳\*

◇ 목 차 ◇

- I. 서 론
- II. 기독교 세례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추적
  - 1. 이교도들의 청결의식
  - 2. 구약의 결례
  - 3. 이방인 개종자 세례
- III. 기독교 세례와 요한 세례
  - 1. 요한 세례의 기원
  - 2. 기독교 세례와 요한 세례와의 관계
    - 1) 기독교 세례와 요한 세례는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
    - 2) 기독교 세례와 요한 세례는 완전히 동일하다는 주장
- IV. 기독교 세례의 제정과 의미
- V. 결 론

## I. 서 론

성례전(聖禮典)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그 성례의 역사적 제정은 항상 눈에 두드러진 문제가 되어왔다.<sup>1)</sup> 세례의 경우에서도 그 역사적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2)</sup>

만약 세례가 어떤 종교적 사상과 개념들을 표현하기 위해 인간에 의하여 제정된 의식과 종교적 관습들 중의 하나로서 그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랑할 만한 하나의

\*助教授

1) G.C. Berkouwer, *The Sacraments: Studies in Dogmatics*(Grand Rapids:Eerdmans, 1969), pp.90ff.  
 2) Jay. E. Adams, *Meaning & Mode of Baptism*(Philadelphia: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6), p.5.: 세례에 대한 연구도 그 원초적 제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례 문제를 다룬 대부분의 책들이 이것을 생략하거나,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지나쳐 버린것은 이상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신적 권위에 의한 것이나, 인간에 의한 것이나, 또는 어떤 배경에 근거한 것이냐에 따라 세례에 대한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세례 전체의 가치와 의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